

# 순천 가곡지구 구획정리 부실

## 자재·구조물 등 설계와 달라...시공·감리업체 유착 의혹

순천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장정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행된데다 값싼 자재가 사용되는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단이 시공사인 A 건설측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체와의 밀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곡지구는 당초 설계도면에 4~5

개의 축대를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이를 외면, 토지 소유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축대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등 건축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A건설측은 값싼 골재로 토지 기반을 다지거나 배수관로를 시공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조합이나 감리단 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적공사와 A 건설회사가 지정한 사설 측량업체 간 이견으로 지적공사 측이 측량을 포기, 향후 측량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리단 관계자는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착공돼 현재 5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곡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사업비 2백33억6천만원(공사비 1백21억3천만원, 보상비 1백12억3천만원)을 들여 29만4천3백24㎡(8만9천33평)에 달하는 토지를 조성하게 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고로쇠약수 드시러 오세요”

제 27회 광양 백운산 고로쇠약수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일 광양시 옥룡면 약수제단에서 열렸다. 고로쇠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는 취타대공연과 풍물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광양~묘도 다리 이름 지어주세요

### 전남도, 10일까지 공모

전남도와 광양시가 광양~묘도간 교량(조감도) 이름 공모에 나섰다. 광양·여수산단진입도로 3공구에 세워질 광양~묘도간 다리는 1만8천 TEU급 컨테이너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높이 71.3m에 주탑 사이 구간(주경간장)을 1천545m로 늘렸다. 1천545m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을 상징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지역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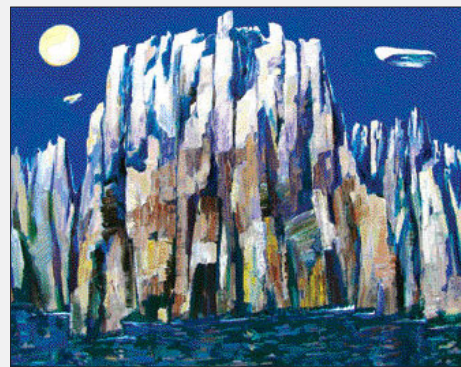
과 특성이 어우러진 명칭을 공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교량 이름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리 이름 공모는 오는 10일까지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접수받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웅비하는 광양항을 상징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다리를 광양대교(SunShine Bridge)로 명명하여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한 바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여수의 매력 화폭에

### 강종열씨 '풍경전'...10일까지 진남회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지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여수 풍경전’이 여수 진남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전업작가 강종열 화백의 전시회는 여수의 매력과 멋스러움을 한껏 표현하고 있다. 그림의 소재는 여수의 명소들이다. 오동도와 동백, 향일암, 임포마을, 자산공원, 무술목, 돌산대교, 경도, 거문도 등대, 여수항, 백도 등 다채롭다. 바다를 소재로 향토성 짙은 그림을 그려온 강화백은 30여회에 걸쳐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강종열 작 '백도 장군바위'

특히 지난 2003년 필리핀 만델리온 초청으로 3개월간 순회 전시회를 여는 동안 마닐라 외곽지역에서 열병과 기아 에 허덕이며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목격하면서 제 3 세계의 실상을 그림으로 알리기도 했다.

강 화백은 지난 1993년 올해의 우수작가상과 제 6회 동서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미전과 전남도 미전, 중앙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작가회, 선과 색 회장을 맡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 시내버스 준공영제 혈세 낭비 우려 ”

### 여수시민협, 서비스 모니터링·투명성 확보 방안 등 요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혈세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여수시에 보낸 ‘대중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에서 “준 공영제가 철저한 준비 과정과 사후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교통행정 개혁은 후퇴하고 시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준공영제 준비 영역은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서비스 모니터링, 버스회사 평가, 버스회사 투명성 확보방안, 기반시설 확충),

노선체계 개편(도심권 중심의 이중 노선 폐지 및 신설, 노선별 적정운영 버스대수), 시민의견 수렴, 서비스 현장제정 운영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또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당하게 쓰이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수업체 관련 위원 수를 과반(8명) 이하로 줄이고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협의 주장이다.

여수시민협은 이밖에 ▲오리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을 화장동으로 옮

기고 ▲그에 따른 부속 건물 등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운행시간표 표시, 주요 승강장에 운행정보 시스템(전자안내판) 설치, 승강장에 불법 주차차 단속, 버스 환경 개선(청결유지, 벨소리점검, 안내방송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2008년 하반기 중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올해 영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광양시, 전남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양시가 전라남도 주관 '2006년도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을 선정해 평가를 실시해 왔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세무공무

원 전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관표창과 함께 시책추진 보전금 1억원과 시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오는 5월 행사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연찬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선정된 바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무안 452-8535	나주시 332-5544 나주군 332-7764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완안 554-6677	화순 374-4423 장성 392-7000
보성 853-97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영암 473-2340
순천 746-8111	신안 243-3758	평택 863-8822
고흥 833-9900	진도 543-0100	광산 944-0444
북동 842-2121	강진 433-8355	고창 564-1919
구례 783-8111	함평 324-8111	순창 653-6155
곡성 362-8111		

### “끈끈한 사타구니 상쾌하게 탈출하세요”

기능성 남성 속옷 '무스더넌츠' 허트레갈

본 제품은 천연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섬유를 사용하여 사타구니 부위를 시원하게 시원하게 탈출시켜 주며, 냄새를 예방해 줍니다. 또한, 기능성 섬유를 사용하여 사타구니 부위를 시원하게 시원하게 탈출시켜 주며, 냄새를 예방해 줍니다.

www.Roxstarpanik.com 1577-2787

###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새롭게... **민간관광코스** **근대외식**

아외 결혼식 가능 (1부제)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관광코스)

문의: (062) 262-2278